

시민의 공간은 행복하게, 노동자의 일터는 건강하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컨설팅

글 이승열 사진 김지원

깨끗한 환경, 깔끔한 시설, 대구 시민이 마주하는 쾌적한 시설물은 일상 속 작은 행복이다. 그 쾌적함 이면에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노동자의 수많은 땀방울이 묻어 있을 터. 달구벌(達句伐)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재난안전처 재난관리팀 구성원들의 각고의 노력은 오늘도 구슬땀으로 이어진다.



따분한 교육은 NO, 재미있는 안전보건 프로그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2022년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의 통합으로 출범한 공공기관이다. 체육·문화시설, 환경시설, 도로·교통시설 등 시내 시설물을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재난안전처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도 보호한다. 재난안전처는 중대재해팀, 환경안전 TF팀, 재난관리팀 등 총 3개 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 재난관리팀은 자연재난에 대비하며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1,500명, 시설물 또한 대구시 구석구석에 퍼져 있어 안전보건활동에 애를 먹는 만큼 그 역할은 쉽지 않다. 특히 시설물 특성상 시 외곽에 자리할 수밖에 없는 하수처리시설, 소각장 등의 환경시설을 다녀오려면 고박 하루도 부족하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노동자의 참여다. 다만, 단순한 교육과 강의는 노동자의 관심 끌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난관리팀은 체험형 교육에 중점을 맞췄다. 가상현실(VR)을 이용한 안전교육이





대표적 사례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상황을 가상현실에 재현해 노동자가 실감 나게 체험함으로써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방식이다. 마치 게임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에 참여도가 높고, 반응 또한 긍정적이라며 재난안전처 문한기 처장은 설명한다.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 체험형 교육에 대한 선호가 많아서 VR 안전교육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반응이 좋아요. 이외에도 메타버스를 이용한 O-X 퀴즈를 비롯해 안전보건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가급적 노동자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즐거워야 효과도 높은 법이니까요.”

더욱 건강한 현장으로 나아가는 길

2022년 11월,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였다. 이 시기에 수많은 사업장이 안전한 일터 구축에 나섰다. 공단도 마찬가지였고, 큰 발걸음을 뒀다.

사업장의 위험요소는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가장 잘 아는 법, 시작은 의견 청취였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안전보건 설문조사표를 활용해 안전보건 인식 현황을 조사했고, 사업장을 찾아가 노동자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 결과, 화학물질과 관련한 안전인식이 비교적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 종류가 워낙 다양할뿐더러 관리법 또한 까다롭고, 자칫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큰 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그렇게 지난해 3월부터 3주간 실시한 대한산업보건협회와의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컨설팅. 담당자였던 재난관리팀 박서영 주임은 만족감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위험 화학물질을 교체 및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사용방법, 성분 함량에 따른 관리법 등 세부적인 컨설팅 덕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공단에 소중한 데이터가 축적됐고, 저 또한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사업장이 더욱 안전해진 것을 느낍니다.”



일터의 안전이 곧 시민의 행복으로

재난관리팀은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컨설팅과 지방공기업 최초로 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토대 삼아 올해 3월 자체 안전보건활동 강화 로드맵을 수립했다. 안전보건 경영체계, 안전보건 예방활동, 안전보건 문화확산 등 큰 3가지 분야 속에 세부 실천과제 25가지를 도출, 안전보건활동 체계를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게 쌓아나간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의 최종 도착지는 자기규율예방체계 확립이다. 재난관리팀 장강민 팀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짐했다. “사실 저희 팀이 아무리 꼼꼼하게 점검한다 해도 현장에서 잠시만 방심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자체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노동자분들께서는 불편하더라도 보호구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수칙을 꼭 준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와 재난관리팀도 노동자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존재 이유는 시민의 행복이다. 더 나아가 공단 노동자의 행복은 곧 시민의 행복과도 이어진다. 한 단계 안전하고 건강해질 공단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이 흘릴 땀과 노력 끝에 세워질 대구 시민의 행복을 기대한다. 🍷

Mini Interview

“안전 빠진 일터,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재난안전처 문한기 처장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재난안전처 재난관리팀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구 시민과 공단 노동자의 안전을 최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의 자율적인 개선을 추구하고, 안전의식이 전 사업장에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부문 다짐과 포부를 들려주세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차라리 일하지 마라.”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든 매뉴얼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또 직접 발로 뛰며 안전보건활동이 현장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